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연구 배경	1
2. 개요 및 중요성	2
3.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	5
4. 시사점	10
【별첨】	12
【HRI 경제 통계】	19

< 요약 >

■ 연구 배경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공적 혹은 사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사회서비스는 복지 수단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 등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 이에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정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사회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 증가 없는 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중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었다. 한편 '05년 이후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3%로 제조업(41.9%)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부가가치 증가율(7.3%) 측면에서는 오히려 제조업(6.6%)을 앞서고 있다.

■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

첫째,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4.6%로 OECD 평균(6.7%)을 크게 하회한다. 국내 사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9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OECD 26개국 중에서 21위 수준이다. **둘째**, 고용 비중은 26개국 중에서 25위(5.4%)에 불과하다. 양적인 고용 규모는 '92년 이후 3.8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증가율은 산업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68% 수준으로 21위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92년 제조업 생산성의 137%에 이르렀던 사회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12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성의 44%까지 하락하였다. **넷째**,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26명)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발전 정도는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하다.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을 따라잡았으나,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격차는 소득 격차와 같은 속도로 좁혀지고 있지 않다.

■ 시사점

첫째,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선도하는 시장 조성(Market Making)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 차별화, 공급자간 경쟁 유도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넷째**, IT·제조와 연계한 신성장 융합 산업화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형 사회서비스산업 발전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업 발전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유럽형, 또는 시장 주도의 미국형 모델에 대한 방향 정립이 요구된다.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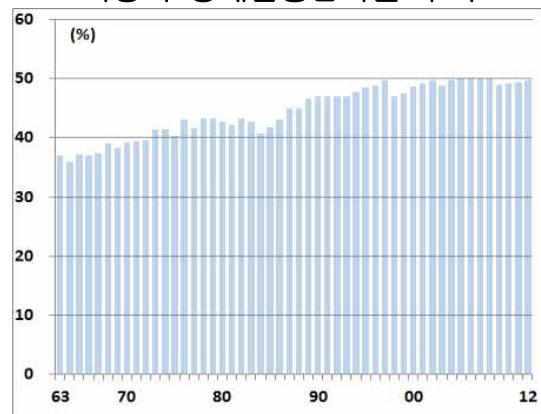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저출산으로 인해 총인구에서 14세 이하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4%(1980년)에서 10%(2060년)로 감소하고, 소득수준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4%(1980년)에서 40%(2060년)로 변화할 전망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196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기준으로 약 50%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11년 기준 약 49%)은 OECD 평균인 약 62%(2011년)보다 13%p 정도 낮음(자료: World Bank))
 - 따라서 보건 및 의료와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이 아닌 복지의 수단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는 고용 창출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발전 정도는 미흡
 - 특히, 고용 증가가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최근의 추세 속에서도 고용창출을 주도함
 - 그러나 부가가치나 고용 측면에서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정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불과
- 이에 사회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특징을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추이>

	1980년	2000년	2020년	2040년	2060년
0~14세	34%	21%	13%	11%	10%
15~64세	62%	72%	71%	57%	50%
65세 이상	4%	7%	16%	32%	40%

자료: 통계청.
주: 장래인구추계 중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 개요 및 중요성

1) 사회서비스산업 개요

- (정의)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적 혹은 사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
 -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공되는 돌봄·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간병·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미
 -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¹⁾에 비해서 시장지향적이고 산업적 성격을 보유
- (범위) 본 보고서는 사회서비스를 협의로 정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한정하여 분석
 - 사회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연구기관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²⁾
 -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보건의료·교육·주거·문화·환경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연구기관들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
 - 관련 법률 및 각종 연구보고서가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산업 간, 국가 간 비교를 실시³⁾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세부 내용	비고
보건 의료	· 보건업은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포함	· 협의의 사회 서비스
사회 복지	· 사회복지업은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교육	·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교육 서비스업	
문화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에서 문화 관련 부문	· 광의로 사회 서비스를 정의할 때 포함
환경	· 산업 또는 생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을 포함하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기타	· 고용 부문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부문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주: 세부 내용은 표준산업분류상의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

- 1)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등 사회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별첨1> 참조.
- 2) 관련 법률 및 연구기관별 사회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별첨2> 참조.
- 3)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혹은 ISIC Rev 4.의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로 한정.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OECD STAN 및 EUSTAT의 NACE Rev 2.의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는 ISIC Rev 4.에 기반.

2) 사회서비스산업의 중요성

○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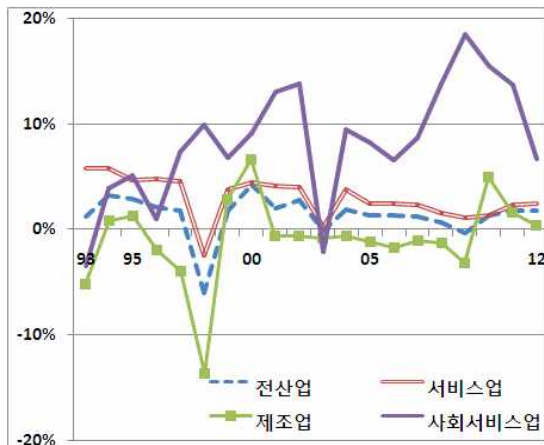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 증가 없는 성장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중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

- 1992년~2012년까지 사회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약 8.1%로 동기간 전산업(1.3%), 제조업(-1.0%), 서비스업(3.0%)을 능가
- 다만 2009년 최고 수준(18.5%)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상승세는 다소 완화(2012년에는 약 6.7%의 증가율)

- 사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⁴⁾⁵⁾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및 전산업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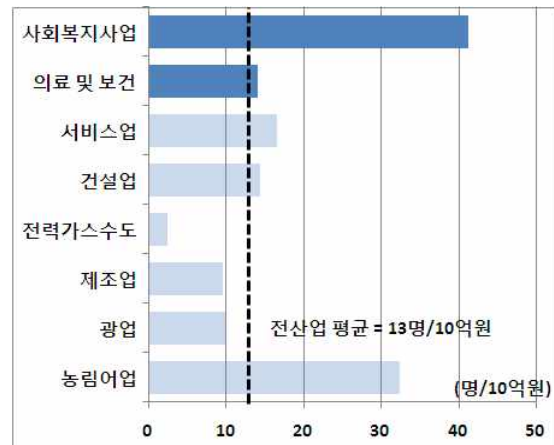
- 사회복지업의 취업유발계수는 41명/10억원, 의료 및 보건업은 14명/10억원으로 전산업 평균(13명/10억원)보다 높은 수준
- 사회복지업과 보건 및 의료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평균하여 사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계산하면 28명/10억원⁶⁾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1993년~2012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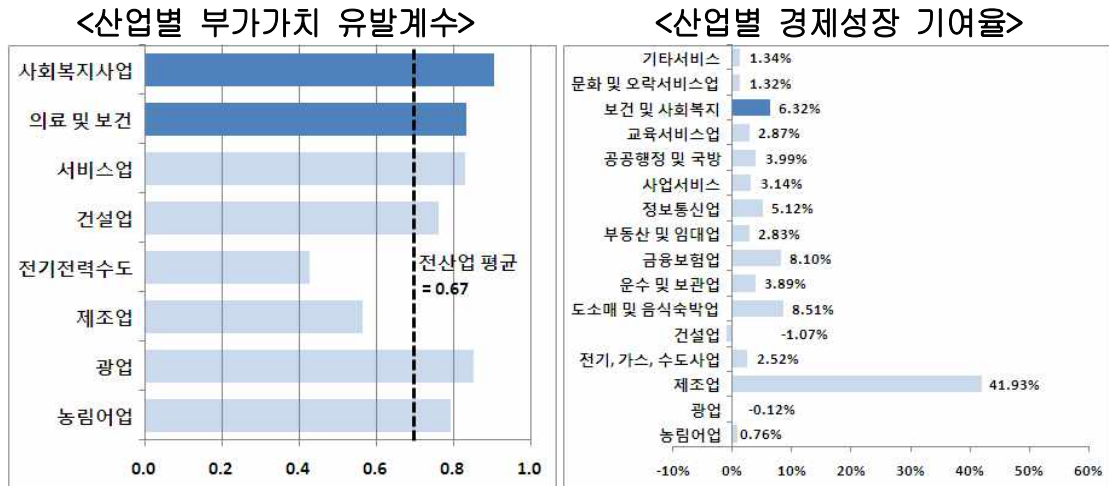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0년).
주: 1) 중분류(78개) 기준에서 단순 평균하여 산출
2)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산업 제외하고 산출.

4)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 부문과 기타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

5) '2009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1)'는 대분류(28개 부문)기준에서 단순 평균하여 제조업 등의 유발계수를 구한 반면, 본 보고서는 중분류(78개 부문) 기준을 토대로 단순 평균하여 유발계수 산출.

6) 취업유발계수를 계산할 때 단순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의료 및 보건과 사회복지사업의 취업자수 기준으로 기중평균하여 산출하면 24명/10억원 수준.

- (경제 성장) 사회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파급을 통한 경기 부양 및 경제 성장에 기여
 - 정부나 민간의 사회서비스 관련⁷⁾ 지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⁸⁾는 제조업 및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사회복지업과 의료 및 보건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각각 0.90단위, 0.83단위로 제조업(0.56)이나 전산업 평균(0.67) 보다 높음⁹⁾
 -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에 이은 4위
 - 2005~2012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의 약 6.3%를 담당(동일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3.35%) 중에서 0.23%p의 경제성장 기여도¹⁰⁾)
 -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2005~2012년)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산업(7.3%)은 제조업(6.6%), 다른 서비스업(3.5%) 및 전산업 평균(4.2%)을 능가¹¹⁾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0년).

- 주:1) 중분류(78개) 기준에서 단순평균하여 산출
- 2)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산업 제외하고 산출.

자료:한국은행.

- 주:1) 2005~2012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기준
- 2) 보건 및 사회복지지는 사회서비스산업 의미.

- 7) 사회서비스산업은 산업연관표(중분류 기준)상의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하고 분석. 그러므로 KSIC-9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는 분류기준상의 차이가 발생함에 유의.
- 8)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해당산업 및 타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 의미.
- 9) 사회복지업과 보건 및 의료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단순 평균하여 사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계산하면 약 0.87단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계산할 때 단순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의료 및 보건과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면 0.84단위.
- 10)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는 <별첨3> 참조.
- 11) 산업별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2005년~2012년)은 <별첨4> 참조.

3.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

1) 주요 특징

① (부가가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함

- 전산업 대비 사회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2배 이상 상승

-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1%(1992년)에서 4.7%(2012년)로 2.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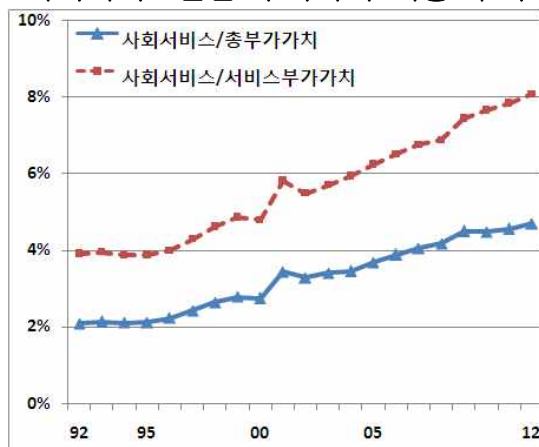
- 동일 기간 서비스업 대비 비중 또한 3.9%에서 8.1%로 4.2%p 상승

-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의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4.6%(2011년)로 OECD 평균(6.7%)보다 낮고 총 26개국 중에서 21위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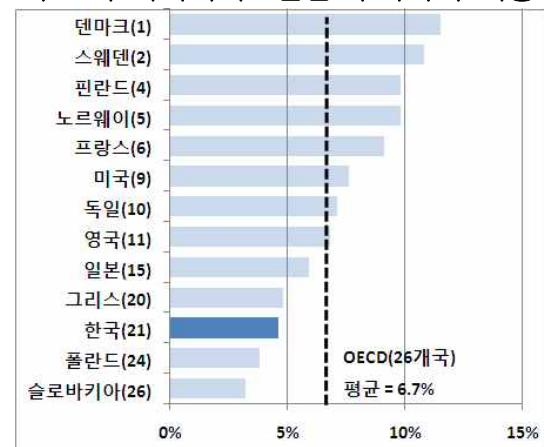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가 약 30,000달러로 동일할 때 OECD 20개국의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은 19위¹³⁾

- 한편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은 2000년 이후 명목 부가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약 12%씩 성장하여 OECD 평균(6.7%)을 크게 상회하는 1위¹⁴⁾

<사회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주요국 사회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OECD, EUSTAT,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OECD 소속 26개국 기준으로 순위(괄호 안의 값) 산정

2) 미국·프랑스·스페인(2010년), 포르투갈(2009년), 영국·일본(2008년), 기타 20개국 2011년 기준

3) 사회서비스산업 부가가치 / 전체 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의미.

12) OECD 26개국의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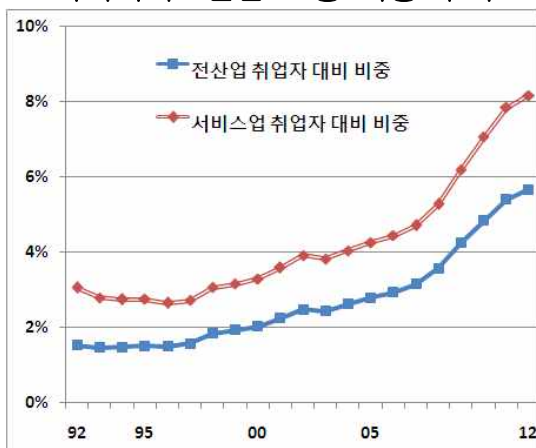
13) OECD 20개국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가 동일할 때의 사회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별첨9> 참조.

14) OECD 26개국의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증가율은 <별첨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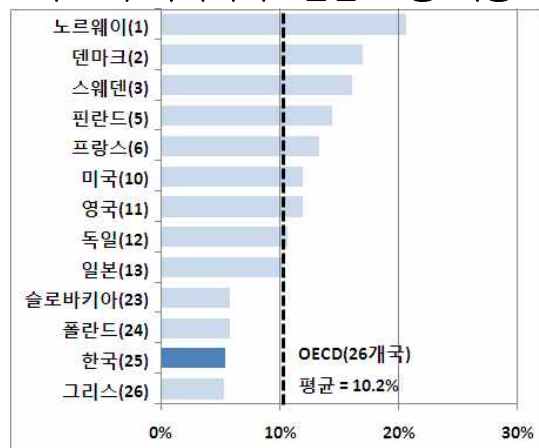
② (고용) 1992년 이후 20년 간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약 3.8배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약 53%(=5.4/10.2)에 불과

-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5%에서 2012년 5.7%로 크게 증가
 - 특히 20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212만명)의 약 42%(81만명)가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창출
 - 그러나 사회서비스산업의 월평균 임금(188만원)은 전체 산업 평균(210만원)보다 낮고 연평균 임금 증가율도 산업 평균을 하회¹⁵⁾
- 사회서비스산업의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2011년)로 OECD 평균(10.2%)을 크게 하회하고 총 26개국 중에서 25위 수준¹⁶⁾
 - 전산업 대비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노르웨이(20.6%), 덴마크(17.0%) 순서이고 한국은 그리스(5.3%), 폴란드(5.8%) 등과 유사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가 약 30,000달러로 동일할 때 OECD 20개국 간의 사회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은 18위¹⁷⁾

<사회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추이>



<주요국 사회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자료: OECD, EUSTAT, 통계청.

- 주: 1) OECD 소속 26개국 기준으로 순위(괄호 안의 값) 산정
 2) 미국·프랑스·스페인(2010년), 포르투갈(2009년), 영국·일본(2008년), 기타 20개국 2011년 기준
 3) 사회서비스 취업자 / 전산업 취업자, 사회서비스 취업자 /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의미.

15) 산업별 임금수준과 연도별 임금 증가율은 <별첨5>, <별첨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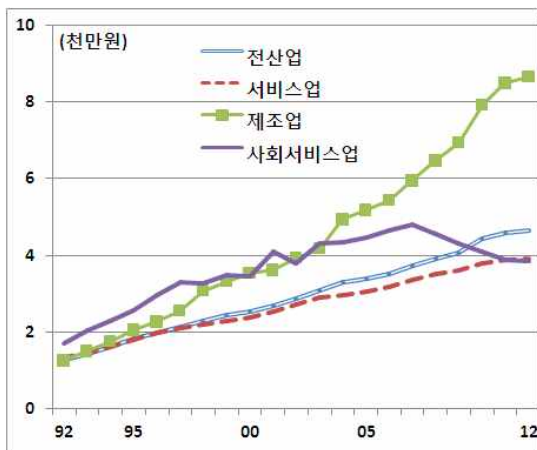
16) OECD 26개국의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6> 참조.

17) OECD 20개국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가 동일할 때의 사회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은 <별첨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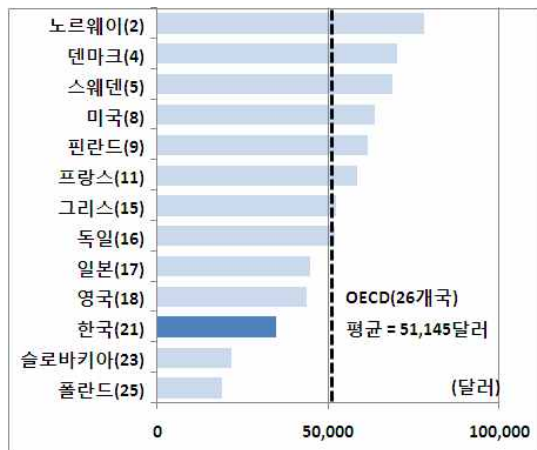
③ (생산성)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OECD 평균 이하인 21위 수준

- 다른 산업과는 달리 사회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 심화
 -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2007년 약 4,800만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 약 3,900만원
 - 1992년 사회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137%였으나, 2012년에는 4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생산성은 달러기준으로 환산시 총 26개 국가 중에서 21위 수준에 불과¹⁸⁾
 -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34,965달러)는 OECD 평균(51,145달러)의 68%에 불과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가 약 30,000달러로 동일할 때 OECD 20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비교하면 한국은 15위

<사회서비스산업 일인당 부가가치 추이>



<주요국 사회서비스산업 일인당 부가가치>



자료: OECD, EUSTAT,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OECD 소속 26개국 기준으로 순위(괄호 안의 값) 산정

2) 미국·프랑스·스페인(2010년), 포르투갈(2009년), 영국·일본(2008년), 기타 20개국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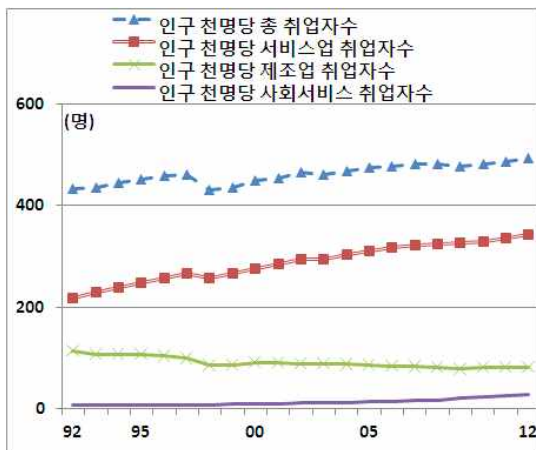
3) 생산성(일인당 부가가치) = 사회서비스산업 명목 부가가치 / 취업자

18) OECD 26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일인당 부가가치는 <별첨7>, 구매력기준 일인당 GDP가 동일할 때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별첨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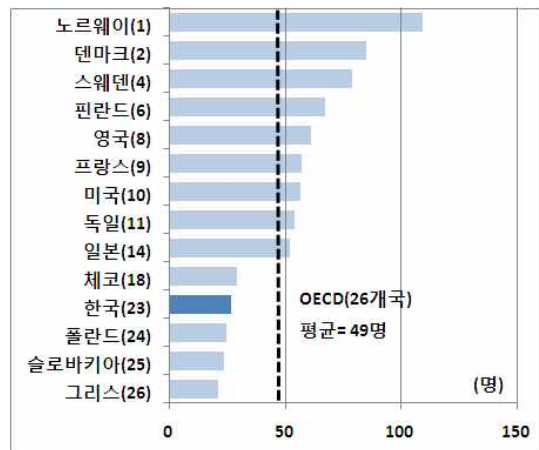
④ (서비스 공급 측면) 인구 천명당 종사자 규모로 볼 때 국내 사회서비스산업은 26명으로 OECD 평균(49명)을 크게 하회하여 공급 능력이 취약

-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1992년 이후 4배 이상 상승
 - 1992년(7명)에서 1999년(8명) 사이에는 일정한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나타냄
 - 2000년(9명)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으로 28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서비스업 전체에서 8.2%의 비중에 불과
- 그러나 OECD 26개국 중에서는 23위(26명)이고, 평균(49명)의 53% 수준에 해당¹⁹⁾
 - 한국의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 종사자(26명)는 폴란드(24명), 체코(29명) 등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
 - 영국(61명), 프랑스(57명), 미국(56명), 독일(54명)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사회서비스 인구 천명당 종사자 추이>



<주요국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 종사자>



자료: OECD, EUSTAT,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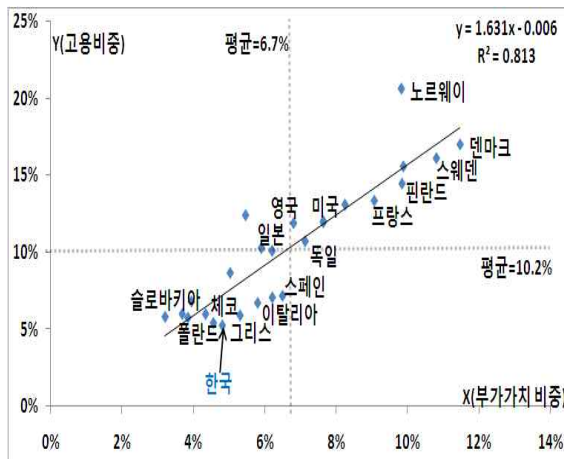
- 주: 1) OECD 소속 26개국 기준으로 순위(괄호 안의 값) 산정
- 2) 미국·프랑스·스페인(2010년), 포르투갈(2009년), 영국·일본(2008년), 기타 20개국 2011년 기준.

19) OECD 국가별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는 <별첨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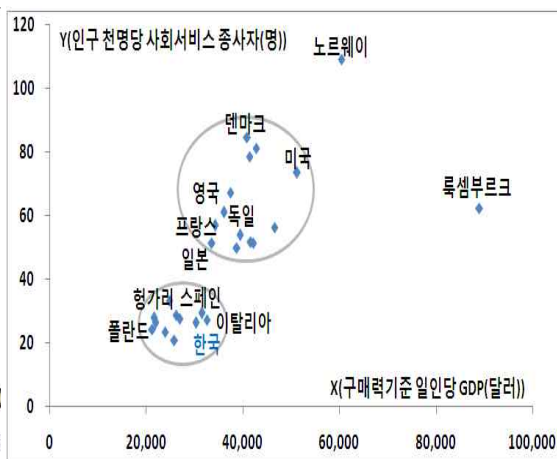
2) 종합 평가

-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은 전산업 평균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지난 20년 간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2배, 고용 비중은 3.8배 이상 증가
- 그러나 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등 모든 측면에서 OECD 평균 이하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 총 26개국 중에서 부가가치 비중은 21위, 고용 비중은 25위, 생산성은 21위, 인구 천명당 종사자 규모는 23위 수준에 불과
 - 부가가치와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수준은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²⁰⁾
-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OECD 국가들과의 사회서비스산업 발전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을 따라잡음
 - 한편 인구 천명당 종사자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과의 사회서비스산업 발전 격차는 소득 격차와 같은 속도로 좁혀지고 있지 않음

<사회서비스 고용과 부가가치 관계>



< 일인당 GDP와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관계 >



자료: OECD, EUSTAT, World Bank, 통계청.

- 주: 1) 미국·프랑스·스페인(2010년), 포르투갈(2009년), 영국·일본(2008년), 기타 20개국 2011년 기준
 2) 전산업 대비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3) 일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20) 한국과 유사한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 수준일 때 OECD 국가들의 고용-부가가치의 관계는 <별첨10> 참조.

4. 시사점

첫째, 정부의 시장 조성자(Market Making) 및 선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선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 정부는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체계적인 수급계획 마련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
-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 배분 실시
 - 정부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에 집중하여 공익성 훼손 방지에 주력
 -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영리기관 및 비영리 민간 단체의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둘째,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육성해야 한다.

- 고용창출 효과 증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 저부가가치·저생산성·저임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 수준 등 열악한 처우 여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체계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육성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 등 인력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우수 인력 확보 노력

셋째,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 차별화, 공급자간 경쟁 유도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 정부는 사회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공급자간 경쟁 유도를 통한 품질 향상 추구

- 전자바우처 제도와 같이 공급기관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급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 공익성의 범주 안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의 동시 추구 방법 모색
- 경제력이 충분한 중산층 이상에게는 시장 경쟁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넷째, IT·제조 등 신성장 융합 산업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야 한다.

-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은 사회복지 부문의 다양한 서비스 활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회 형성
- 보건 및 의료산업은 의료용 로봇 등 제조업과 연계한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다섯째, 한국형 사회서비스산업 발전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 정부 주도의 유럽형 사회서비스 모형과 시장 주도의 미국형 사회서비스 모형을 참고하여 한국형 사회서비스 발전 모형 정립 필요
 - 이는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해당
 - 한국형 사회서비스 모형의 정립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함
- 어떤 모형을 정립하느냐에 따라 수십 년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HRI**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2072-6228)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2072-6242)

<별첨 1> 사회서비스와 유사한 개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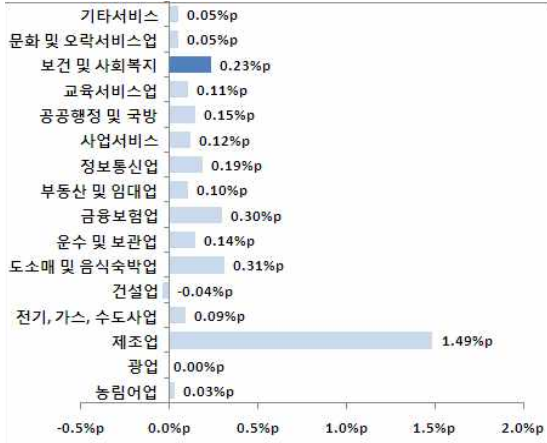
	정의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별첨 2> 사회서비스산업 정의와 범위

출 처	정의 및 범위
사회보장 기본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는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계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
KDI (김 진)	· 소비외부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공적제공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로 정의 · 광의로는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을 포함 · 협의로는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최협의로는 사회복지서비스만을 포함
산업연구원 (조현승· 하봉찬)	· 광의의 사회서비스에는 국방,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 ·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재활 및 자립을 돕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 협의의 사회서비스에는 사회복지, 기초의식주 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 문화서비스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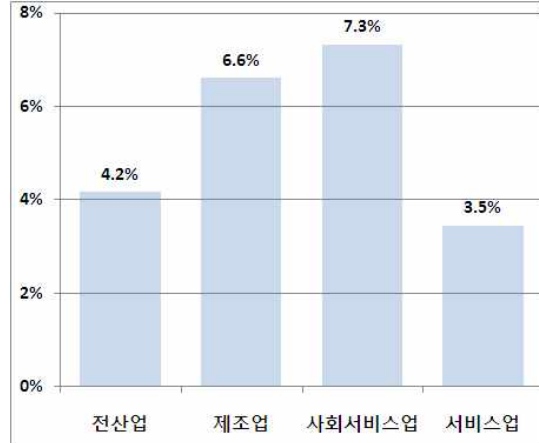
<별첨 3>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 주: 1) 2005~2012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기준
- 2) 보건 및 사회복지지는 사회서비스산업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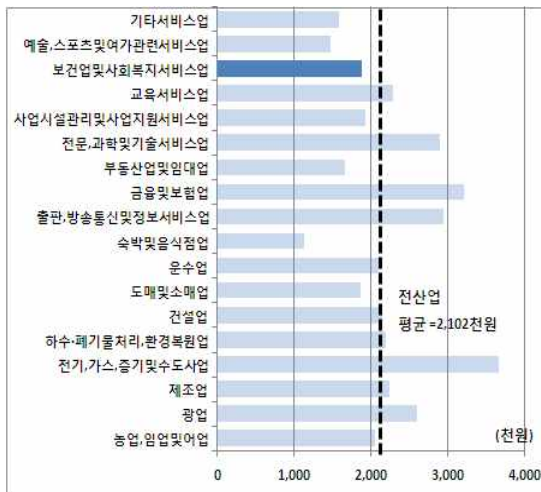
<별첨 4>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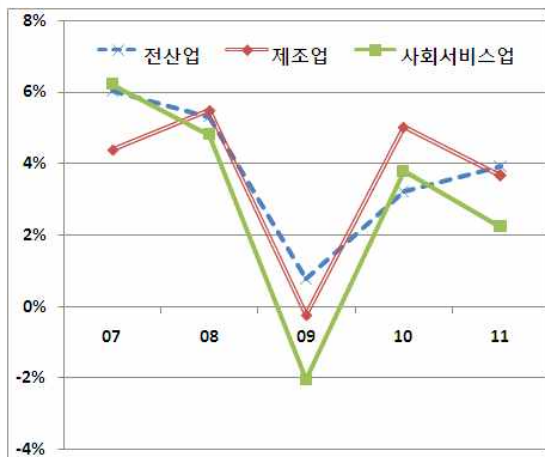
- 주: 1) 05~12년 실질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기준
- 2)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산업 제외하고 산출.

<별첨 5> 산업별 월평균 임금 수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06).

<별첨 6> 사회서비스산업 임금 증가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06).

<별첨 7>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단위: 달러)

국 가	기준연도	대 전산업	대 제조업	대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	일인당 부가가치
오스트리아	2011	6.2%	33.2%	9.0%	4.7%	54,230
벨기에	2011	7.6%	55.4%	10.0%	5.2%	64,445
체코	2011	4.3%	18.2%	7.1%	6.9%	27,975
덴마크	2011	11.5%	105.8%	15.0%	4.1%	70,211
에스토니아	2011	3.7%	21.3%	5.5%	10.9%	20,183
핀란드	2011	9.8%	57.0%	14.2%	5.6%	61,769
프랑스	2010	9.1%	88.0%	11.4%	5.1%	58,722
독일	2011	7.1%	31.5%	10.4%	3.1%	52,165
그리스	2011	4.8%	52.4%	6.0%	9.0%	52,454
헝가리	2011	3.9%	17.2%	6.1%	5.5%	16,744
아일랜드	2011	8.3%	38.1%	11.6%	8.3%	70,452
이탈리아	2011	5.8%	36.3%	7.9%	4.0%	68,655
일본	2008	5.9%	29.6%	8.4%	3.2%	44,784
한국	2011	4.6%	14.6%	7.8%	11.9%	34,965
룩셈부르크	2011	5.0%	73.2%	5.9%	9.1%	84,326
네덜란드	2011	9.9%	76.5%	13.4%	6.5%	54,835
노르웨이	2011	9.8%	127.0%	17.4%	7.9%	78,343
폴란드	2011	3.8%	21.8%	6.1%	9.8%	18,802
포르투갈	2009	6.2%	49.3%	8.3%	6.0%	36,405
슬로바키아	2011	3.2%	15.2%	5.3%	10.2%	21,745
슬로베니아	2011	5.3%	26.2%	7.9%	5.2%	41,591
스페인	2010	6.5%	50.1%	9.2%	7.9%	61,059
스웨덴	2011	10.8%	64.5%	15.1%	5.0%	69,037
스위스	2011	5.5%	29.7%	7.5%	5.1%	58,573
영국	2008	6.8%	55.0%	9.0%	6.9%	43,636
미국	2010	7.6%	65.2%	9.6%	6.5%	63,656
26개국 평균	-	6.7%	48.2%	9.4%	6.7%	51,145

자료:OECD, EUSTAT, 통계청.

- 주:1) 사회서비스산업의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 2) 2000년 이후 해당 국가 기준년도까지의 사회서비스산업 명목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
- 3) 일인당 부가가치는 해당연도의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자국통화 기준 부가가치를 달러로 환산하여 산출

<별첨 8>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국 가	기준연도	대 전산업	대 제조업	대 서비스업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오스트리아	2011	10.1%	69.9%	14.1%	52명
벨기에	2011	12.0%	101.0%	15.1%	50명
체코	2011	6.0%	24.0%	10.0%	29명
덴마크	2011	17.0%	151.2%	21.4%	84명
에스토니아	2011	6.0%	29.6%	9.3%	26명
핀란드	2011	14.4%	95.5%	20.2%	67명
프랑스	2010	13.3%	121.7%	17.1%	57명
독일	2011	10.7%	61.4%	14.5%	54명
그리스	2011	5.3%	54.3%	7.5%	21명
헝가리	2011	6.8%	32.7%	10.8%	28명
아일랜드	2011	13.1%	113.5%	17.2%	52명
이탈리아	2011	6.7%	37.0%	9.7%	27명
일본	2008	10.3%	59.9%	14.9%	51명
한국	2011	5.4%	32.0%	7.9%	26명
룩셈부르크	2011	8.6%	96.4%	11.3%	62명
네덜란드	2011	15.6%	161.8%	19.1%	81명
노르웨이	2011	20.6%	221.1%	26.6%	109명
폴란드	2011	5.8%	30.8%	10.1%	24명
포르투갈	2009	7.1%	45.9%	11.3%	33명
슬로바키아	2011	5.8%	26.7%	9.0%	24명
슬로베니아	2011	5.9%	28.7%	9.7%	28명
스페인	2010	7.2%	62.7%	9.6%	29명
스웨덴	2011	16.1%	119.9%	21.1%	78명
스위스	2011	12.4%	84.6%	16.8%	73명
영국	2008	11.9%	120.8%	14.7%	61명
미국	2010	11.9%	147.3%	14.2%	56명
26개국 평균	-	10.2%	81.9%	14.0%	49명

자료: OECD, EUSTAT,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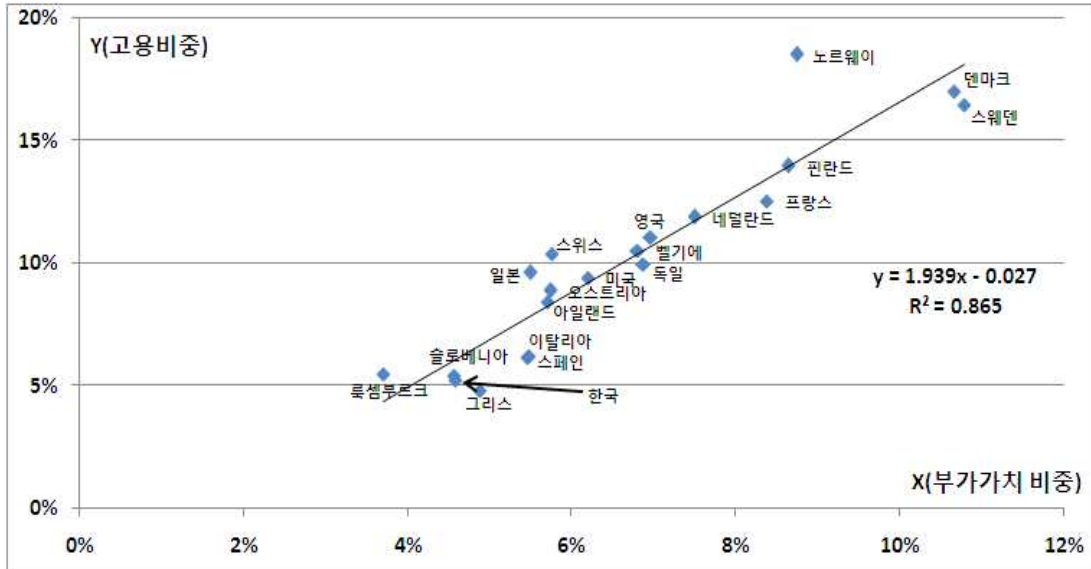
<별첨 9>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3만 달러일 때 OECD 국가별 사회서비스산업 비교

국 가	연도	1인당 GDP (구매력 기준)	부가가치 비중 (대 전산업)	고용 비중 (대 전산업)	일인당 부가가치 (달러 기준)
오스트리아	2002	30,464	5.7%	8.9%	31,012
벨기에	2003	30,295	6.8%	10.5%	43,579
덴마크	2002	30,757	10.7%	17.0%	33,994
핀란드	2005	30,708	8.6%	14.0%	43,968
프랑스	2006	31,274	8.4%	12.5%	50,629
독일	2005	31,115	6.9%	10.0%	44,098
그리스	2008	29,604	4.9%	4.8%	63,157
아일랜드	2001	30,768	5.7%	8.4%	36,421
이탈리아	2006	30,359	5.5%	6.2%	59,053
일본	2005	30,441	5.5%	9.6%	42,291
한국	2011	30,286	4.6%	5.4%	34,965
룩셈부르크	1990	30,351	3.7%	5.5%	35,405
네덜란드	2001	30,788	7.5%	11.9%	27,078
노르웨이	1999	29,801	8.7%	18.5%	28,871
슬로베니아	2008	29,074	4.6%	5.2%	41,932
스페인	2006	30,333	5.5%	6.1%	48,611
스웨덴	2003	30,431	10.8%	16.5%	41,314
스위스	2000	32,509	5.8%	10.4%	20,769
영국	2003	29,775	7.0%	11.1%	34,319
미국	1997	30,282	6.2%	9.4%	38,960
20개국 평균	-	30,471	6.6%	10.1%	40,021

자료: OECD, EUSTAT, 통계청, World Bank.

- 주: 1) 구매력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World Bank 기준
 2) 일인당 부가가치는 해당연도의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자국통화 기준 부가가치를 달러로 환산하여 산출
 3) 2011년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30,000달러 미만인 체코 등 6개국은 제외하고 20개국 대상으로 분석.

<별첨 10> OECD 20개국 사회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의 관계



자료: OECD, EUSTAT, 통계청(OECD 20개국 기준).

- 주: 1) 국가별 일인당 GDP는 약 30,000달러(구매력 기준)로 동일하며, 소득에 따른 효과 통제
- 2) 2011년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30,000달러 미만인 체코 등 6개국은 제외하고 20개국 대상으로 분석.

< 참고 자료 >

- 김진 외(2011),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2011-7), 한국개발연구원.
- 김휘석(2007),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산업경제정보 (2007-18), 산업연구원.
- 조현승·하봉찬(2008), 「사회서비스산업의 수요공급 전망 및 산업화 방안」, 산업연구원.
- 이건우(2012),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ISSUE PAPER(2012-288), 산업연구원.
- 이병희·강기우(2008),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은행.
- 원종욱 외(2009),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2011), 「2009산업연관표」.
- 통계청(2008), 「한국표준산업분류」.
- Bahle, T.(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 pp.5-20.
- Hyekyu Kang et al.(2007),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OECD(2012),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Social expenditure (SOCX) data update」.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3.1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6	2.5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0.7	2.2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5	4.8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	28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9	259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5	-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5)	(5.6)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2.5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85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